

2021년 2차시험(기계안전) 후기

(2022년 최종 합격을 한 이후 지난해 2021년 2차시험 후기를 작성합니다)

❖ 1차시험

2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험준비를 시작하여 3월에 1차 시험을 합격했습니다.

3과목 기업진단/지도가 생소해서 많은 투자를 했고 1, 2과목은 시중에 나와있는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1차 시험은 노하우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출문제 유형을 보고 관련 분야의 법령을 공부했고, 3과목은 그냥 외웠고 실제 시험 풀 때 모르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2차/3차 동시 합격을 원하시면 산안법령과 안전보건규칙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3~4회 정도는 정독하고,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10번 이상 보셔야 합니다.

❖ 2차시험

1. 법령은 어느정도 자신 있어서 제일 먼저 한 공부는 그동안의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험의 기본이 기출문제 파악이니까요.

큐넷 사이트에서 기출문제 내려받아 각종 교재와 구매한 서브노트, 아는 지도사님께 받은 자료 등을 종합하여 답을 달았습니다. 역시 동일 또는 유사문제가 반복 출제되었습니다.

2. 그 다음은 공단의 코샤 가이드 중에서 제목에 '기계' 라고 적힌 문서는 모두 출력해서 봤습니다. 시험대비 뿐만 아니라 업무와도 연관되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 1번 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1번 볼 때 중요한 분야만 체크하여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게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입니다. 결국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서 연계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정리할 때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이 여기에 많았습니다. 이것도 1개월 정도 걸린 듯합니다.

3.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불안하여 거금을 들여 산업안전지도사 동영상강의를 보았습니다. 이 강의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출제유형과 암기방법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4. 개인적으로 2차 시험이 쉬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총점 180점이 되어야 합격인데 179점이었습니다. 평균 59.66!!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단답형중 사용/허용응력 설명과 진동유발 기계 적기가 0점이었습니다. 많이만 적으면 기본점수를 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단답형은 0점 처리했고 25점 문제들도 20점 이상 될 것 같았는데 16~18점 수준이었습니다.

5. 이때 억울했지만 제가 알고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 횡설수설하지 않는 답안 작성요령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 2차시험(기계안전) 후기

❖ 2차시험

1. 21년 9월부터 건물 신축공사로 바빴습니다. 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22년 4월에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너무 안해서 2차 시험 포기하려다 책을 펴 보니 기억이 또렷이 나기에 4월 말부터 다시한번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2. 이때는 경험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출제 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기출문제들을 정리를 했고 반복해서 보았기에 그런 유형으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유추해보았습니다.
3.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시간이 없어 21년과 동일하게 기출문제를 다시보면서 그것과 연관되거나 유사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때는 21년에 구매했던 기계안전과 관련된 책자를 같이 봤습니다. 교재는 다양한 설비에 대한 설명도 있었고, 로봇과 비파괴검사, 보전활동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4. 짧은 시간에 목표 범위를 1회 보고 시험을 봤습니다.
2차시험은 유추했던 자율안전확인신고에 대한 문제가 2문제(단답/25점 각 1문제) 나왔기에 쉽다고 생각했는데 25점 문제 중 이상한 문제가 있어서 올해도 힘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출제 오류로 만점처리 되면서 정말 천운으로 합격했습니다.
단답형은 개념과 용어의 정의 위주로 공부를 해서 골고루 득점을 했습니다.
5. 2021년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부터 지도사와 관련된 몇 개의 밴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실제 밴드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었고, 개인적으로 전화드려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도사 시험이 전부 경쟁자이다보니 수험생들로 부터는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도 정보를 얻으려고만 했지 제가 알고있는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합격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면 많은 정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쑥 연락하기가 힘들겠지만 용기를 내셔서 문자나 전화를 드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시험준비를 하면서 돈이 좀 들어도 준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큰 펀칭기와 프린터, 꽃았다 뺏다 할 수 있는 플라스틱 링 등은 필수입니다. 여기저기서 받은 자료들을 컴퓨터나 핸드폰에 다운받아도 출력하지 않으면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만하면 자료 정리에 편리합니다. 돌아보니 출력하고 바인더화 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7. 법령 외에도 공부해야 할 기본서 1~2권은 필수입니다. 지도사 공부 준비하면서 기술사 분들 서브노트도 몇권 구입해 봤는데 별 도움이 안되었습니다. 합격자분들의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라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별도로 서브노트는 없이 제가 기출문제를 정리하면서 관련된 분야를 같이 정리했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8. 시험 경향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문적인 분야는 이견이 많을 수 있어 채점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올해 2차 및 3차 시험은 다수가 산업안전보건법령과 고시, 그리고 이론이 여지가 없는 기계안전분야 이론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기에 법령과 고시에 대한 비중이 높아 질 것 같습니다.

2022년 3차시험(기계안전) 후기

❖ 3차시험 (면접)

1. 2차 불합격일 것 같아 1개월을 공부를 했는데 7월 중순에 갑작스러운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제오류라고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모든 수험생들이 만점처리 되었다고 합니다.
2. 1개월 남았기에 법령과 안전보건기준규칙, 위험성평가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고시, 기계안전기술사 기출문제집 등을 집중적으로 보았습니다. 안전관련 현업에 종사하고 있어 법령은 자신 있었는데 각종 고시들은 1개월 쉬고 나니 기억이 가물가물~~~
3. 기재하는 것과 구술로 답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2차시험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정리한 후 논리적으로 기술 가능하지만 구술은 횡설수설할 수 있기에 중요한 사항은 말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아는 것들은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두문자로 암기했습니다.
4. 면접 2일차 마지막 시간에 배정되었는데 1일차 면접이후 면접문제들이 공유되면서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 다른 문제가 출제되길래 정말 당황스럽고 심리적으로 불안했습니다. 아는 것들도 기억이 안나고 머리는 갑자기 멍해지면서 멘붕이 왔습니다.
5. 그래서 핸드폰 꺼버리고 지금까지 공부한데로 반복학습했습니다. 지방이라 새벽 기차로 서울을 가야 하는데도 잠도 오지 않아서 새벽까지 공부했고 기차에서도 잠이 오지 않아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6. 밥 생각도 없어 근처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으면서도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우습지만 주변이 다 면접보는 분들이라 창피하지도 않았습다^^
7. 블라인드 면접이라 복장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밴드에서 만난 분이 정장으로 가라고 해서 정장으로 갔습니다.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 보니 정말 두꺼운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지만 벽과의 틈, 블라인드 간의 틈이 있어 면접관들이 수험생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애매한 경우에는 복장을 잘 갖춰 입은 사람에게 더 점수를 줄 것이라는 마음이 들어 안도가 되었습니다.
8. 면접간 질문은 ①신호방법을 정해야 하는 작업 8가지 ②공진의 개념과 발생시 조치사항 ③위험성평가방법 6가지 였습니다. 하느님이 보우하사.... 정말 마지막까지 보고 또 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질문 하자마자 답변하면 가볍게 보일 것 같아 5초 정도 고민하는 척 하면서 천천히 또렷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진방지 대책은 공부할 때 부터 공진 예방설계 외에 다른 자료가 없어 명확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면접관이 그 외 대책은 없나요? 라고 물었을 때 과감히 ‘네, 다른 대책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9. 면접도 분명한 답이 있는 즉, 법령 등에 ①,②,③,④,⑤... 으로 된 조문을 묻는 것이 추세인 것 같습니다. 올해 2차 1문제 전원 합격처리, 20년 2차 시험 1문제도 행정소송을 통해 전원 합격처리 되어 40여명이 올해 3차에 응시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지도사 시험 대비방향

❖ 1차시험

1. 그냥 외우고 열심히 공부. 1차 시험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음!!
2. 2차 / 3차 동차 합격을 원할 경우 법령, 안전보건규칙, 각종 고시에 대한 공부 병행
 - *산업안전보건법은 법과 영, 규칙을 3단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누락없이 공부
 - *2~3차 준비할 때는 10번 이상보고 중요한 별표도 두문자로 정리하여 바로 입에서 답이 나올 정도로 암기해야 함

❖ 2차시험

1. 13년 이후 기출문제는 반드시 암기
2. 신출로 나올 만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
 - *실제 안전지도사 업무에 중요한가? 라는 관점보다는 시험에 출제된 경우 논란이 없고 변별력 있는 문제가 될 것인가에 주안을 두고 공부
3. 법령, 안전보건규칙, 각종 고시에 대한 집중 공부
 - *산업안전보건법은 법과 영, 규칙을 3단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누락없이 공부
 - **용어의 정의,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 방지조치, 도급시 산재예방,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산업안전지도사 관련조항 중 ①,②,③,④,⑤... 등으로 나열된 조문 또는 관련 별표

❖ 3차시험

1. 수험생 대부분이 2차 시험의 연장선이라 생각함
2. 어떻게 선발하는가에 대한 이해 필요!!
 - *각 면접일정 및 시간대마다 면접관이 다르고, 질문이 틀림. 따라서 2차시험처럼 면접을 본 전체인원 중에서 6점 이상자를 가려내기는 힘들.
 - *선배 지도사의 의견을 빌자면 해당 일자의 해당 타임에 면접을 본 인원들 중에서만 할당된 우수자를 선발하는 방식인 것 같다고 함.
 - *이 방식이 맞는 것 같음. 난이도가 높은 타임에서 50점 받은 사람과 난이도가 낮은 타임에서 90점 받은 사람을 같이 평가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동일한 날짜와 시간대에 면접을 보는 수험생들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면접관이 할당된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 같음.
 - *그래서, 공부하고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예의범절상 복장이나 인사 등 기본적인 예절도 사소한 것 같지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